

보도시점 2023. 10. 26.(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10. 25.(수)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 광역 2곳(부산,제주)과 기초 5곳(수원,시흥,광명,창원,통영) 지자체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자체 5곳(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2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24.1.1~‘26.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이 지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지자체별 우수한 점. 끝.

|       |              |     |      |     |                |
|-------|--------------|-----|------|-----|----------------|
| 담당 부서 | 환경부<br>환경교육팀 | 책임자 | 과 장  | 한명실 | (044-201-6531) |
|       |              | 담당자 | 사무관  | 하은숙 | (044-201-6532) |
|       |              |     | 전문위원 | 박수연 | (044-201-6538) |



- (목적)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추진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지정기간) 3년(‘24.1.1~‘26.12.31)
- (지정기준) 기본요건\* 3개 항목 충족 시 심사개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 환경교육 성과의 우수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우수성 등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 \* 지자체 조례제정 여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여부
- (지정절차) 공모를 신청(‘22.7)한 지자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 대상 선정,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평가결과) 광역 2개 및 기초 5개 지자체를 지정대상으로 선정(‘23.10)
- (지정결과) 지정대상 선정 7개 지자체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안)에 대하여 환경교육위원회(‘23.10)에서 ‘원안 가결’되어 지정 확정

〈광역〉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 ‘22년 지정 :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

| 지자체     | 우수한 점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환경교육 조례 제정,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이행, 지역 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환경교육 자체 예산 확보 및 환경교육도시로의 전환 의지가 뛰어남</li> </ul> |
| 부산광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부터 지정되었던 시범환경교육도시로, 광역단위 환경교육도시로서 관내 기초지자체로의 환경교육 활성화 성과, 대학 및 마을단위의 학습공동체 사업 성과가 우수함</li> </ul>                       |
| 제주특별자치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도시이자 도서지역인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도시 비전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이 활발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
| 수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의 환경교육도시 사업에 대한 의미와 비전이 매우 명확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함. 또한 환경교육 전담팀이 10년 전부터 구성되어, 축적된 기반이 뛰어남.</li> </ul>           |
| 광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중심의 환경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가진 전 도시의 학습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 환경교육 사업 운영의 계획이 충실함.</li> </ul>                    |
| 시흥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화호와 중소 산단 도시인 시흥시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서의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으며,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함</li> </ul>               |
| 창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의 환경과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지향과 의지가 매우 분명하며, 조직,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확고함. 경상남도 지역의 특례시로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
| 통영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높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국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 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어촌환경교육)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우수함.</li> </ul>          |